

특별기고

본 <특별기고>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의 저명한 일본학 연구자, 활동가, 예술가 등의 기고이다. 이미 일본학의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온 필자들의 최근 연구 및 동향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21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연구 활성화와 교류를 도모하고자 한다.

[특별기고 집필자 프로필]

이토 요시히데(いとう よしひで Ito Yoshihide) 약력

현 게이오기쥬쿠대학강사

헤이안 문학, 한일비교민속학, 오리구치 시노부연구 전공.

저서: 『오리구치학으로 읽는 한국예능』(게이오기쥬쿠대학출판회, 2006)

『해설 겐지모노가타리 오십사찰』(공저, 단코샤, 2008)

논문: 「겐지모노가타리 주제와 구조」 왕조의 노래와 이야기,(오후사, 1980)

■ 伊藤好英(Ito Yoshihide) 略歴

現 慶応義塾大学 講師

専攻分野は平安朝文学・日韓比較民俗学・折口信夫研究。

著書: 『折口学が読み解く韓国芸能』(慶応義塾大学出版会, 2006)

『明解 源氏物語五十四帖』(共著, 淡交社, 2008)

論文: 「源氏物語の主題と構造」 王朝の歌と物語,(櫻楓社, 1980)

유정(柳呈)의 한국어역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 「본문」 「해설」 「주석」에 관하여 —

이토 요시히데*

一

한국에서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전문(全文)을 한국어로 번역한 책은 현재까지 세 종류가 나와 있다.¹⁾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유정(柳呈)의 『겐지(源氏)』이야기.는 그 중 가장 먼저 출간된 것이다. 그 첫 판본은 1973년에 간행되었다. 두 번째 한국어역이 1999년에 간행되었으니, 이 책은 한국에 있어서 26년 동안 유일한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번역본이었던 셈이다. 한국에서의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이해에 있어, 이 책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으리라 여겨지지만, 이 책의 성격을 그 「해설」이나 「주석」까지 포함해 비평한 논고는 아직 한일양국 어느 쪽에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하 소론은 바로 이 문제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二

먼저 이 책을 포함한 세 종류의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한국어번역본에

* 게이오기쥬쿠대학 강사

1) 유정과 전용신, 김난주의 번역 외에는 김종덕의 번역(『겐지이야기』 지만지, 2008)이 있지만, 이 번역본은 각 단별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을 발췌하여 번역한 것이라 『겐지모노가타리』 전문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본고의 논의에서는 제외하였다.

관한 출판 상황을 정리해보겠다.

① 유정(柳埜) 역 무라사키 시키부(紫式部) 겐지(源氏)이야기.

A 상하 2권, 「세계고전문학대전집(世界古典文學大全集)」 중 2권, 문우사(文友社), 1973년. 상권 맨 앞에 「해설」이, 각 첩(帖) 끝에 「주석」이, 하권 끝에 「연보」가 달려있다.

B 1권, 「세계문학전집(世界文學全集)」 중 1권, 을유문화사(乙酉文化社), 1975년. 각 첩(帖) 끝에 「주석」이, 하권 끝에 「연보」가 달려있다.

C 상하 2권, 「신장판세계문학전집(新裝版世界文學全集)」 중 2권, 을유문화사(乙酉文化社). 상권 맨 앞에 「해제」, 각 첩(帖) 끝에 「주석」이, 하권 끝에 「연보」가 달려있다.

D 상하 2권, 「세계대표고전문학전집(世界代表古典文學大全集)」 중 2권, 한국출판사, 1982년. 상권 맨 앞에 「해설」이, 각 첩(帖) 끝에 「주석」이, 하권 끝에 「연보」가 달려있다.

② 전용신(田溶新) 역 무라사키 시키부(紫式部) 겐지이야기.

전3권, 나남출판, 1999년. 제1권 서두에 역자 서문이 있고, 필요한 페이지에는 각주가 있으며, 각 권 끝에 「헤이안쿄 헤이안궁도(平安京 平安宮圖)」, 「헤이안쿄 황궁도(平安京 皇宮圖)」, 「헤이안쿄 조방도(平安京 条坊圖)」, 「관직표(官職表)」가 달려있다.

③ 김난주(金欄周) 역, 김유천(金裕千) 감수, 무라사키 시키부(紫式部) 작, 세토우치 자쿠초(瀬戸内寂聴) 현대일본어 역 겐지이야기.

전 10권, 도서출판 한길사, 2007년. 각권 맨 앞에 범례가 있고, 뒤에 도록(圖錄) · 관위상당표(官位相当表) · 가계도 · 연보 · 지도 · 어구해설 · 고가(古歌)출전이 달려있다.

이 세 번역본의 저본(底本)과 주석에 관해서는, ① C본의 「해제」 및 ②의 「서문」 · ③의 「범례」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① 본문은 「일본고전문학대계(日本古典文學大系) <源氏物語>」(山岸德平校注, 岩波書店版)에 의거하고, 요사노야키코(與謝野晶子) · 다니자키준이치로(谷崎潤一郎)의 현대어 역을 크게 참고했다. 【유정(柳埜) 역에는, 주석의 전거(典據)가

나와 있지 않다.】

② 저본(底本)으로 아베 아키오(阿部秋生)·아키야마 켄(秋山虔)·이마이 겐에(今井源衛) 교주 역, 일본고전문학전집(日本古典文學全集)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小學館)를 선택해, 우선 그 현대어 역을 번역하고 난해한 부분을 원문에 의거해 수정했다. 저본 주석 중 필요한 것을 번역해 각주(脚注)로 하고, 간단한 주석은 괄호를 쳐서 본문에 넣었다.

③ 세토우치 자쿠초(瀬戸内寂聴) 현대일본어 역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를 한국어로 번역했다. 어구해설과 고가(古歌) 출전은 다카기 가즈코(高木和子)가 작성한 것을 토대로 수정을 가했다.

三

이제 이상과 같은 서지(書誌) 사항을 기초로 하여, 유정(柳呈) 역 ‘겐지(源氏)이야기(위의 ①)의 구체적인 비평으로 들어가 보겠다.

우선 본문에 관해 살펴보자면, 위에 소개한 ①C의 「해제」에 쓰여 있는 역자의 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의 원문을 직접 번역한 것이 아니라, 요사노아키코(與謝野晶子)의 현대어역을 중역(重譯)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이 점은 이전부터 김종덕이나 히나타 가즈마사(日向一雅) 등도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 히나타(日向)는 기리쓰보(桐壺) 권(卷)을 대조 분석해 그 점을 확인했는데, 최근에는 이지선(李芝善)이 유가오(夕顔)권의 분석을 통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²⁾

내가 확인한 바로도, 위의 지적은 틀림없다. 원문에는 없는 요사노(與謝野)역의 보족(補足)이나 표현까지 꽤 충실하게 한국어로 옮긴데다, 단락을 맺는 방식이나 회화문 삽입 방식에서도 요사노(與謝野)역의 깊은 영향을 전편에 걸쳐 찾아볼 수 있다. 다만, 본문에 관해서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점을 한 가지 지

2) 金鍾德 「韓国における源氏物語研究」(源氏物語講座9 「近代の享受と海外との交流」所収、勉強社、一九九二年)、同 「韓国における「源氏物語」の翻訳と研究—北京「源氏物語」国際会議「源氏研究」7、二〇〇二年)、日向一雅 「朝鮮語訳「源氏物語」について」(「新物語研究」2、一九九四年)、李芝善 「韓国語訳「源氏物語」にみる古典文学翻訳論—柳呈訳を中心に—」(「物語研究」8、二〇〇八年) 등 참조.

적하자면, 유정의 번역본은 A본에서 D본까지 모두가 동일한 본문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해설과 주석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점에 관해 조금 살펴보겠다.

유정(柳埜)의 번역본 네 가지 중, A본과 D본은 출판사가 다를 뿐, 목차에서부터 권말의 「연보」에 이르기까지 페이지 수까지 포함해 완전히 같은 내용의 책이다. 다만 권두화(口繪)와 본문 안의 에마키(繪卷)나 사진은, 위치를 그대로 두고 갈아 끼웠다. 을유문화사에서 나온 B와 C 두 책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해제」 유무와 장정 차이는 있지만, 본문·주석·연보의 내용은 같다. 그리고, 이 「A본·D본」과 「B본·C본」의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A본·D본=요사노(與謝野)역에 의거하고 있는데, 그 전문(全文)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줄거리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락 후반이나 도중을 빠뜨리고 번역했다. 요사노(與謝野)의 신신역겐지모노가타리(新新譯源氏物語)에는, 54첩(帖)의 각 첩 앞에 아키코(晶子)의 자작(自作) 「겐지모노가타리에찬(源氏物語礼讚)」가(歌)가 한 수씩 실려 있는데, A본·D본에는 이를 모방하듯 시인이기도 한 유정(柳埜)이 주요 등장인물의 마음을 노래한 시조(時調) 형식의 단시(短詩)가 각 첩 앞에 실려 있다.

B본·C본=A본·D본과 비교하면, 보다 충실한 요사노(與謝野)역 겐지(源氏)의 번역을 지향하고 있다. A본의 본문을 수정한 부분도 있다. A본·D본에 첩(帖)마다 실려 있던 역자의 시는 게재되어 있지 않다.

즉, 유정(柳埜)은 요사노아키코(與謝野晶子) 역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를 토대로, 1973년에 한국에서 최초의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번역본을 냈는데, 1975년에 거기에 다시 상당한 수정과 보족을 가해, 이 번역본(요사노역 겐지 번역본)의 충실한 번역을 지향한 것이다.

四

다음으로, 유정(柳埜) 역의 「해설」 문제에 들어가 보겠다.

유정(柳埜) 역 A본·C본·D본에는 그 권두에 각각 「해설」 「해제」가 달려있

다. 이 중, A본과 D본의 「해설」은 완전히 같은 내용이다. 이에 대해, C본의 「해제」는, A본의 「해설」을 기술(記述) 순서 등을 바꿔 대폭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해설」과 「해제」에 붙여진 표제와 소제는 다음과 같다.

「해설」=고전으로서의 위치

작자 무라사키 시끼부(紫式部)

구성과 내용

제1부 다양한 애욕과 영달

제2부 고뇌하는 현실적 인간상

제3부 사랑과 신뢰의 영원화

성격과 특징

◇ 괴이-그 유형적 요소

◇ 「귀종유리담(貴種流離譚)」의 영향

◇ 왕씨(王氏)와 타씨(他氏)의 대립

◇ 일본 고대에서의 「好色」

◇ 한 가문을 저주하는 원귀(怨鬼)

헤이안조(平安朝)의 관직과 위계(位階) - 일본고전문학의 한 배경 -

一, 조정의 관직제도

二, 후궁의 관직제도

三, 지방행정관제

「해제」=

一, 문학작품으로서 의의

二, 작자 무라사키 시끼부(紫式部)

三, 주제와 구성

(1) 제1부 다양한 애욕과 영달

(2) 제2부 고뇌하는 현실적 인간상

(3) 사랑과 신뢰의 영원화

四, 헤이안조(平安朝)의 후궁제도

五, 성격과 특징

(1) 괴이-그 유형적 요소

(2) 「귀종유리담(貴種流離譚)」의 영향

(3) 왕씨(王氏)와 타씨(他氏)의 대립

- (4)일본 고대에서의 「好色」
- (5)한 가문을 저주하는 원귀(怨鬼)
- (6)헤이안조인(平安朝人)의 취미와 생활

六, 한국어 역에서의 방법론

- (1)여러 이본 중의 「아오보시본(青表紙本)」
- (2)와카(和歌) 번역의 한 방법

앞에서 언급했듯이, B본은 A본의 본문을 충실화하고, 각 첩(帖) 맨 앞의 역자의 시를 빼고 출판한 것인데, 여기에는 「해설」이 없다. C본은 이 B본의 본문을 이어받아, 여기에 A본의 「해설」을 보다 알기 쉬운 형태로 고쳐 「해제」로서 부가했다. 「해제」는, 「해설」에서 「헤이안조(平安朝)의 관직제도」 부분을 빼고, 대신에 四 「헤이안조(平安朝)의 후궁제도」와 五(6)의 「헤이안조인(平安朝人)의 취미와 생활」 부분을 부가했다.

이들 「해설」 「해제」는, 외국인을 위한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이해의 길잡이로서 상당히 잘 되어있다.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의 문학사적 의의를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의 노벨상 수상 강연인 「아름다운 일본의 나(美しい日本の私)」의 문장을 인용해 알기 쉽게 서술하고,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3부구성의 내용을 간명히 설명해 모노가타리(物語)의 주제에 관한 헤이안조(平安朝) 사람들의 관념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이 「해설」 「해제」가 지닌 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이 문장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이케다 야사부로(池田彌三郎)³⁾의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해설을 거의 그대로 번역한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중심적인 부분이란, 「해설」 중의 「성격과 특징」 부분, 「해제」에서 보면 「五,

3) 1914-1982. 국문학자, 민속학자. 도쿄(東京) 출생. 게이오기주쿠대학(慶応義塾大学) 국문과(国文科) 졸업. 문학박사. 게이오기주쿠대학(慶応義塾大学) 교수, NHK해설위원, 국어심의회위원 등을 겸임. 오리쿠치 시노부(折口信夫)에게 사사(師事)해, 그의 몰후(歿後) 오리쿠치시노부전집(折口信夫全集), 특히 「오리쿠치시노부전집노트편(折口信夫全集ノート編)」 편찬에 주축이 되어 학통의 계승·발전에 힘쓰고, 문학·예능의 전승성에 관한 연구를 필생의 과제로 삼았다. 주요 저작은 「이케다야사부로지작집(池田弥三郎著作集)」 전10권(角川書店, 1979-1980)에 담겨있다.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의 줄거리와 그 무대(관련 장소)를 정리한 예전의 책이 2008년에 「明解源氏物語五十四帖」(이토 요시히데(伊藤好英)와 공저, 淡交社)로 복간되었다.

성격과 특징」 중 (1)부터 (5)부분이다. 이케다 야사부로(池田彌三郎)의 문장이란, 1967년 1월과 2월에 河出書房新社에서 「컬러판일본문학전집(カラー版日本文學全集)」 3·4로 간행된 요사노 아키코(與謝野晶子) 역 '源氏物語 上·下 2권에 달려있는 「해설」이다. 유정(柳呈)이 쓴 「성격과 특징」은, 이케다(池田)가 쓴 「해설」 중 후반부, 즉 요사노 역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하권에 부가된 13페이지에 이르는 문장의 대부분을 꽤 충실하게 번역한 것이다.(단, 첫머리의 세 단락 분은 제외)

양자는 장(章)을 구분하는 방식도 같고, 장의 제목도 유사하다. 이케다(池田) 「해설」의 후반부의 장 제목은 다음과 같다. 이를 앞에 소개한 유정(柳呈)의 「성격과 특징」 속에 들어있는 다섯 개의 소제목과 비교해보면, 그 대조관계는 지극히 명료하다.

六 「유가오」 권(「夕顔」の卷)(유정(柳呈) 역은 이 도중에서부터 시작된다)

七 귀종유리담(貴種流離譚)

八 왕씨타씨(王氏他氏)의 대립

九 이로고노미(色好み)

十 모노노케(ものけ)

이와 같은 이케다(池田)의 논(論)은, 그의 스승인 오리쿠치 시노부(折口信夫)⁴⁾의 「귀종유리담(貴種流離譚)」 「왕씨(王氏)와 타씨(他氏)」 「이로고노미(いろごのみ)」 「모노노케(ものけ)」 등,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와 밀접하게 관련된 학설을 부연해 집필되었으며,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의 주제를 고대일본인의 관념에 기초해 심층적 수준에서 고찰한 것이다. 이케다(池田)는 1959년에 '있는 그대로의 겐지(はだか源氏)」를, 1964년에 '히카루 겐지의 일생(光源

4) 1887-1953. 국문학자, 민속학자, 가인(歌人), 시인, 소설가. 오사카(大阪) 출생. 고쿠가쿠인대학(国学院大学) 국문과 졸업. 문학박사. 고쿠가쿠인대학(国学院大学) 교수와 게이오기쥬쿠대학(慶応義塾大学) 교수를 겸임. 야나기타 쿠니오(柳田国男)와 더불어 일본 민속학 수업에 공헌함과 아울러, 민속학적 입장에 선 독자적인 국문학·예능학의 방법을 개척했다. 가집(歌集)으로는 「바다와 산 사이에(海やまのあひだ)」 등, 시집(詩集)으로는 「古代感愛集」 등, 소설로는 「사자의 서(死者の書)」 등이 있다. 1954~57년에 「오리쿠치시노부전집(折口信夫全集)」 전 32권, 1970~74년에 「오리쿠치시노부전집노트편(折口信夫全集ノート編)」 전 19권, 1987~88년에 「오리쿠치시노부전집노트편추보(折口信夫全集ノート編追補)」 전 5권이 간행되었고, 1995년부터는 신간 「오리쿠치시노부전집(折口信夫全集)」 전 41권이 간행중이다.

氏の一生)을 상재(上梓)했다. 이 두 책은 모두 명저(名著)로 평이 높는데, 특히 '히카루 겐지의 일생(光源氏の一生)'은 講談社現代新書 중의 한권으로 45년간에 이르는 스테디셀러를 이어가고 있다. 이 「해설」에는 바로 이 두 책에 제시된 이케다(池田) 겐지학(源氏學)의 정수(精髓)가 충분히 담겨있다.

유정(柳呈)의 해설이, 이케다(池田)나 오리쿠치(折口)의 이름에 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유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문장이 30년이 넘도록 한국인들에게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에 대한 해설로서 계속해서 읽혀 왔다는 사실이, 이제와 생각해 보면 외려 요행(僥倖)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의 중요한 주제가 명확히 담겨있고, 한국인들이 일본의 왕조인(王朝人)이나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에 대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터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일합병 직전까지, 일본의 근대 천황제와는 완전히 다른 「왕조사회」가 존재했던 한국에서, 「王氏와 他氏」의 투쟁과 같은 내용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역사적인 현실이었던 만큼, 이 「해설」에 대한 이해의 정도도 그 만큼 깊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유정(柳呈)의 해설 중 이 부분이 이케다(池田) 「해설」을 꽤 충실한 번역한 것이라는 인식하에, 그 「번역」을 비평하자면 여기에 또한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케다의 해설 중 후반부만을 번역했다는 점. 일련의 문장의 후반부만을 선택함으로써, 이케다가 역설하고자 했던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의 주제에 관한 논(論) 전부를 소개하지 못했다. 특히,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에 있어서의 「무라사키(紫)」란 말과 주제의 관계를 논한 부분을 빠뜨린 결과가 되었다.⁵⁾

(2) 「이로고노미(いろごのみ)」 「모노노케(もののけ)」에 관한 설명에는, 「이로(いろ)」 「고노무(このむ)」 「모노(もの)」 「게(け)」 등과 같은 일본의 고유어가 지니는 의미의 해석이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로 인해 이 개념 설명에 있어 중심적인 부분에 오역이 생기고 말았다.

5)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역 「源氏物語」上(1967)의 이케다(池田) 「해설」의 장 제목(章題)은 다음과 같다. 「一, 式部の故地」 「二, 「式部」の名」 「三, 「紫」の名」 「四, 物語の作者」 「五, 源氏物語名所図会」.

앞으로, 이 「해설」을 읽을 때는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다.

五

다음으로, 유정(柳呈) 역 「겐지(源氏)이야기」의 「주석」과 「연보」에 관한 문제로 들어가 보겠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유정(柳呈)의 「겐지(源氏)이야기」에는, A본·D본과 B본·C본이라는 두 종류의 「주석」과 「연보」가 있다. 이 두 종류의 내용은 거의 같은데, 후자는 전자에 다소의 수정을 가한 것이다.(「주석」의 수를 늘리고, 「연보」는 활자의 조판방식을 바꾸었다.)

이 「주석」과 「연보」에 관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들은 모두 앞에 든 河出書房新社판 요사노 아키코(與謝野晶子) 역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上·下 2권에 달려있는 「주석」과 「연보」를 참고해 작성된 것이다. 이 河出書房新社版的 현대어역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에는, 상하권의 본문 뒤에 이케다 야사부로(池田彌三郎)가 「주석」을 달고, 하권 말미에는 히사마쓰 센이치(久松潛一)가 기타무라 히사토모(北村久備) 저(著) 「스미레구사(すみれ草)」의 연표를 토대로 작성한 「源氏物語年立」이 달려있다. 유정(柳呈) 역 「주석」은, 이케다(池田)의 「주석」을 크게 참고로 한 것이고, 「연보」는 히사마쓰(久松)가 작성한 「年立」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하지만, 유정(柳呈) 역 「주석」은, 河出書房新社版的 「주석」과는 달리 각 첩 말미에 달려있다. 그것은 이케다(池田)의 「주석」 전체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 단어 설명에 관해서는 유정(柳呈)이 별도로 붙인 것도 많다. 그러나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에 대한 본질적 이해와 관련된 이케다(池田)만의 독자적 「주석」을 그대로 번역한 부분도 많다. 또, 이케다(池田)의 「주석」은 각 첩마다 그 첫 번째 주(注)에서, 그 첩에서의 히카루 겐지(光源氏)(우지주조((宇治十條)에서는 가오루(薰)의 연령과, 권명(卷名)의 유래 등을 포함한 그 첩의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유정의 「주석」은 이 부분을 꽤 충실히 번역하고 있다.

六

이상 본고에서는, 한국 최초의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번역본인 유정(柳呈) 역 '겐지(源氏)이야기'의 성격을, 본문·해설·주석·연보 전반에 걸쳐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유정이 이 번역에 있어 크게 참고한 책을 다음 한권으로 한정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요사노 아키코(與謝野晶子) 역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上·下 2권(「컬러판일본문학전집(カラー版日本文學全集)」 3·4), 河出書房新社, 1967년 1·2월

유정(柳呈)이 참고한 책을 이 한권으로 한정할 수 있는 것은, 유정(柳呈)의 「해설」 「해제」의 저본(底本)에 해당하는 이케다(池田)의 문장은 1973년 이전에는 이 책 한권밖에 없었기 때문이다.⁶⁾ 이 책의 본문은 「쇼와14년(昭和十四年)(=1939년)」이라는 연도가 기록된 아키코(晶子)의 「후기(あとがき)」가 실려 있는 '신신역겐지모노가타리(新新譯源氏物語)'이며, 유정(柳呈) 역 '겐지(源氏)이야기'의 저본은, 역자가 말하는 일본고전문학대계(日本古典文學大系)본이 아니라, '신신역겐지모노가타리(新新譯源氏物語)'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현재까지 전문이 번역된 한국어 역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는 세 종류가 간행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일본에서 간행된 현대어역을 중역(重譯)한 것으로, 원문을 직접 전역(全譯)한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는 아직 간행되지 않은 상태다.⁷⁾ 그 작업이 얼마나 힘든가는,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현대일본어 역 작업에 있어서의 고충을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상상이 갈 것이다. 원문을 제 손 안의 것처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소화하지 않고서는 그 작업은 불가능하며, 게다가 그 의미를 한국어라고

6) 이케다(池田)는 요사노(與謝野) 역 '源氏物語'에 세 종류의 「해설」을 썼다. 맨 처음은 1961년에 日本書房에서 나온 定本 現代語訳 源氏物語 권두에 실은 「겐지모노가타리에 관하여(源氏物語について)」라는 문장, 두 번째는 1965년에 河出書房新社에서 나온 日本文學全集 源氏物語 권말에 덧붙여진 「解説」, 세 번째가 본고에서 논한 1967년의 「해설」이다. 두 번째 「解説」과 세 번째 「解説」은 내용적으로는 겹치는 점도 많지만 문장은 다른데 유정의 「번역」은 후자에 의거한 것이다.

7) 앞서 언급한 김종덕의 발췌 번역은 현대어 번역본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쇼가쿠칸(小学館)에서 출판한 「源氏物語」 1-6권(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 1998)을 대상으로 한 원문 번역임을 밝혀둔다.

하는 다른 체계의 어휘와 표현기능을 가진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려움이 따른다. 우리는, 이 이중의 어려움을 극복한 전역(全譯)이 조금이라도 빨리 출현하기를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어려움을 이해하는 만큼, 앞으로도 이 세 종류의 번역본이 떠맡을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세 번역본은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것은 각 책들이 저본으로 선택한 현대어 역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야기 줄거리의 정확한 전달을 주로 하여, 알기 쉬운 현대일본어로 되어있는 요사노 아키코(與謝野晶子) 역을 저본으로 하여, 시인이자 현대문학 번역가로서도 이름이 높은 유정(柳呈)이 번역한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는 다른 두 번역의 출현 이후에도 결코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번역본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고 있다.'⁸⁾ 그리고 본고에서 밝혔듯이, 이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가 우연하게나마 이루어낸 또 하나의 역할은, 이케다 야사부로(池田彌三郎)의 뛰어난 「해설」과 「주석」을 통해, 한국의 독자들에게 전후 일본에 있어서의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주제론의 출발점이자, 저변의 흐름을 형성하기도 했던 오리쿠치 시노부(折口信夫) 겐지모노가타리론(源氏物語論)의 정수를 소개했다는 점이다. 본고는, 이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가, 오리쿠치(折口)와 이케다(池田)의 이름과 그 논고에 대한 충분한 인식 하에, 앞으로도 계속 읽혀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이 논문은 일본의 『年刊藝能』 第15號(藝能學會, 2009.3)에 게재한 것을 번역한 것이다.

8) 유정(柳呈)은 1922년생으로 학생시절이었던 1937년에 문예지 문예수도(文芸首都)에 투고한 시가 당선되어 시단에 진출, 그 때의 선자(選者)였던 堀口大学에 사숙(私淑)하며 上智大学 문학부에 다니면서 시집 『봄을 향한 노래(春に向ふ歌)』며 단가집(短歌集) 『상처입은 물고기(傷つける魚)』 등을 발표, 일본 패전 후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후에도 시집을 내거나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작품집 등을 번역 소개했다.(김종덕 「한국의 겐지모노가타리연구(韓国における源氏物語研究)」, 『통번역학연구』, 2009).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작품을 번역했고, 「노르웨이의 숲(ノルウェイの森)」을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옮겨서 한국에서 무라카미 하루키 붐을 일으킨 중심 인물이다.(이지선 「한국어 역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에 나타난 고전문학번역론(韓国語訳『源氏物語』にみる古典文学翻訳論)」.

柳呈による韓国語訳『源氏物語』

—「本文」「解説」「注釈」について—

伊藤好英*

—

韓国において、『源氏物語』を全文韓国語に翻訳した本は、現在までに三種類出ている。1) 本稿で問題にしようとする柳(ユ)呈(ジョン)の『源氏イヤギ』は、そのうち最も早く出された『源氏物語』の翻訳本である。その最初の版は一九七三年に刊行されている。二種類目の韓国語訳は一九九九年に刊行されているから、この本は韓国において二六年の間、唯一の『源氏物語』の翻訳本だったわけである。韓国における『源氏物語』の理解にとって、この本の影響力は無視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思われるが、この本の性格がどのようなものであるかを、そこに付せられた「解説」や「注釈」までも含めて批評した論考は日韓両国においてまだ書かれていない。以下の小論はその問題に触れたものである。

* 慶応義塾大学 講師

1) 以下に扱う柳呈・田溶新・金欄周の翻訳以外に金鍾徳の翻訳(『견지이야기』지만지, 2008)があるが、この本は各帖ごとに最も代表的な部分を抜粋して翻訳したものであるため『源氏物語』の全訳を考察の対象とする本稿の論議からは除外した。

二

最初に、この本を含めた三種類の『源氏物語』の韓国語翻訳本の出版状況を整理しておこう。

① 柳呈訳 紫式部 源氏イヤギ

A、上下二巻、「世界古典文学大全集」のうちの二巻、文友社、一九七三年。上巻の最初に「解説」が、各帖の最後に「注釈」が、下巻の最後に「年譜」が付されている。

B、一巻、「世界文学全集」のうちの二巻、乙酉文化社、一九七五年。各帖の最後に「注釈」が、本の最後に「年譜」が付されている。

C、上下二巻、「新装版世界文学全集」のうちの二巻、乙酉文化社。上巻の最初に「解題」が、各帖の最後に「注釈」が、下巻の最後に「年譜」が付されている。

D、上下二巻、「世界代表古典文学全集」のうちの二巻、韓国出版社、一九八二年。上巻の最初に「解説」が、各帖の最後に「注釈」が、下巻の最後に「年譜」が付されている。

② 田(チョン)溶(ヨン)新(シン)訳 紫式部 源氏イヤギ

全三巻、ナナム出版、一九九九年。一冊目の最初に訳者の序文があり、必要な頁には脚注があり、各冊の最後に「平安京 平安宮図」「平安京 皇宮図」「平安京 条坊図」「官職表」が付されている。

③ 金(キム)欄(ナン)周(ジュ)訳、金(キム)裕(ユ)千(チョン)監修、紫式部作、瀬戸内寂聴現代日本語訳 源氏イヤギ

全十巻、図書出版ハンギル社、二〇〇七年。各冊の最初に凡例があり、最後に図録・官位相当表・系図・年譜・地図・語句解説・古歌出典が付されている。

この三種の翻訳本の底本と注釈については、①のCの「解題」ならびに②の「序文」・③の「凡例」に次のように記されている。

① 本文は「日本古典文学大系—源氏物語>」(山岸徳平校注、岩波書店版)に依拠し、与謝野晶子・谷崎潤一郎の現代語訳を大いに参考にした。【柳呈訳には、注釈の典拠は示されていない。】

② 底本として阿部秋生・秋山虔・今井源衛校注訳、日本古典文学全集 源氏物

語(小学館)を選び、まずその現代語訳を翻訳して、理解が難解な部分を原文によって修正した。底本の注釈の中で必要なものを翻訳して脚注とし、簡単な注釈は括弧を付けて本文に組み入れた。

③瀬戸内寂聴の現代語訳 源氏物語 を韓国語に翻訳した。語句解説と古歌出典は高木和子が作成したものを基として修正を加えた。

三

さて、以上の事柄を基礎知識として、以下、柳呈訳『源氏イヤギ』(右記の①)の具体的な批評に入ろう。

まず本文についてであるが、右に紹介した①のCの「解題」の中の訳者のことばにも関わらず、この本が『源氏物語』の原文を直接翻訳したものではなく、与謝野晶子の現代語訳から重訳したものであることは、以前から金鍾徳や日向一雅などによって指摘されている。日向は桐壺の巻の対照分析を行なってそのことを確認したが、最近では李芝善が夕顔の巻の分析を通して同様の確認をしている。²⁾

私が確認したところでも、以上の指摘は間違いのないものである。原文にない与謝野訳の補足や言い回しまでかなり忠実に韓国語に訳しているし、段落の切り方や会話文の挿入の仕方にも与謝野訳の強い影響が全編にわたって見られる。ただし、本文に関してこれまでになされていない指摘をひとつとしておくと、柳呈訳はA本からD本までが同様の本文を持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解説と注釈の問題に入る前にそのことに少し触れておこう。

柳呈訳の四つのうち、A本とD本とは、出版社が異なるだけで、目次から巻末の「年譜」にいたるまで頁数も含めてまったく同内容の書物である。ただ、口絵と本文中の絵巻や写真は、位置をそのままにして差し替えてある。B本とC本の乙西文化社から出された二書は、前述のように「解題」の有無と装丁の違いはあるも

2) 金鍾徳「韓国における源氏物語研究」(源氏物語講座9「近代の享受と海外との交流」所収、勉誠社、一九九二年)、同「韓国における『源氏物語』の翻訳と研究—北京『源氏物語』国際会議」(『源氏研究』7、二〇〇二年)、日向一雅「朝鮮語訳『源氏物語』について」(『新 物語研究』2、一九九四年)、李芝善「韓国語訳『源氏物語』にみる古典文学翻訳論—柳呈訳を中心に—」(『物語研究』8、二〇〇八年)など参照

の、本文・注釈・年譜の内容は同じである。そして、この「A本・D本」と「B本・C本」の本文には、次のような違いがある。

A本・D本=与謝野訳によっているが、その全文を訳しているのではなく、筋の流れを妨げない範囲で、段落の後半や途中を抜かして訳している。与謝野の『新新訳源氏物語』には、五四帖の各帖の最初に晶子自作の『源氏物語礼讃』の歌が一首ずつ掲載されているが、A本・D本にはこれに倣うように、詩人でもある柳呈が主要登場人物の思いを歌った時(シ)調(ジョ)形式の短詩が各帖の最初に載せられている。

B本・C本=A本・D本と比べると、より忠実な与謝野源氏の翻訳を目指している。A本の本文を修正した部分もある。A本・D本にある帖ごとの訳者の詩は掲載されていない。

すなわち、柳呈は与謝野晶子訳の『源氏物語』をもとにして、一九七三年に韓国で最初の『源氏物語』の翻訳本を出したが、一九七五年にそれにかかなりの修正補足を加えて、充実した訳本の出版を目指したのである。

四

次に、柳呈訳の「解説」の問題に移ろう。

柳呈訳のA本・C本・D本にはその巻頭に「解説」「解題」がそれぞれ付せられている。このうち、A本とD本の「解説」は全く同じ内容である。これに対して、C本の「解題」は、A本の「解説」を記述の順序なども変えて大幅に修正補足したものである。この「解説」と「解題」に付けられた見出しと小見出しを抜き出し、日本語に直して示すと以下のとおりである。

「解説」=古典としての位置

作者紫式部

構成と内容

第一部 多様な愛慾と栄達

第二部 苦悩する現実的人間像

第三部 愛と信頼の永遠化

性格と特徴

- ◇ 怪異—その類型的要素
- ◇ 「貴種流離譚」の影響
- ◇ 王氏と他氏の対立
- ◇ 日本古代における「好色」
- ◇ 一つの家門を呪詛する怨鬼

平安朝の官職と位階—日本古典文学の一つの背景—

- 一、朝廷の官職制度
- 二、後宮の官職制度
- 三、地方行政官制

「解題」=

- 一、文学作品としての意義
- 二、作者紫式部
- 三、主題と構成
 - (1)第一部 多様な愛慾と栄達
 - (2)第二部 苦悩する現実的人間像
 - (3)第三部 愛と信頼の永遠化

四、平安朝の後宮制度

五、性格と特徴

- (1)怪異—その類型的要素
- (2)「貴種流離譚」の影響
- (3)王氏と他氏の対立
- (4)日本古代における「好色」
- (5)一つの家門を呪詛する怨鬼
- (6)平安朝人の趣味と生活

六、韓国語訳における方法論

- (1)さまざまな異本の中の「青表紙本」
- (2)和歌翻訳の一方法

先に述べたように、B本はA本の本文を充実させ、帖の最初の訳者の詩を除いて出版したものであるが、これには「解説」がない。C本はこのB本の本文を受

け継いで、これにA本の「解説」をよりわかりやすい形に書き換えて「解題」として付している。「解題」は、「解説」から「平安朝の官職制度」の部分を除き、かわりに四の「平安朝の後宮制度」と五の(6)の「平安朝人の趣味と生活」の部分をつけ加えている。

これらの「解説」「解題」は、外国人が日本の¹源氏物語, を理解するための手引きとして、かなりよく出来上がっている。¹源氏物語, の文学史的意義を川端康成のノーベル賞受賞講演「美しい日本の私」の文章を引いてわかりやすく述べ、¹源氏物語, の三部構成の内容を簡明に説明し、物語の主題に関わる平安朝人のものの考え方を的確に紹介しているのである。

しかし、ここで私はこの「解説」「解題」の持つ大きな問題点を指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は、この文章の最も中心的な部分が池田弥三郎³⁾の¹源氏物語, の解説をほぼそのまま翻訳したものであるという事実である。

中心的な部分とは、「解説」の「性格と特徴」の部分、「解題」で言えば「五、性格と特徴」のうちの(1)から(5)の部分である。池田弥三郎の文章とは、一九六七年の一月と二月に河出書房新社から「カラー版日本文学全集」3・4として刊行された与謝野晶子訳¹源氏物語, 上・下二巻に付せられている「解説」である。柳呈の「性格と特徴」は、池田の「解説」のうちの後半部、すなわち与謝野訳¹源氏物語, 下巻に付せられた一三頁に及ぶ文章の大部分をかなり忠実に翻訳しているのである。(ただし書き出しの三段落分は除く。)

両者は章の分け方も同じで、章題も類似している。池田の「解説」後半部の章題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これを先に記した柳呈の「性格と特徴」の中の五つの小タイトルと比べてみれば、その対照関係はきわめて明瞭である。

六 「夕顔」の巻(柳呈訳はこの途中から始まる)

七 貴種流離譚

3) 1914-1982. 国文学者、民俗学者。東京生まれ。慶応義塾大学国文科卒業。折口信夫に師事し、その没後「折口信夫全集」、特に「折口信夫全集ノート編」編纂の主力となって学統の継承・発展に努め、文学・芸能の伝承性の研究を生涯の課題とした。文学博士。慶応義塾大学教授、NHK解説委員、国語審議会委員等を兼務。主要著作は「池田弥三郎著作集」全10巻(1979-1980 角川書店)に纏められている。源氏物語のあらすじとその舞台を記したかつての書物が、2008年に「明解源氏物語五十四帖」(伊藤好英と共著, 淡交社)として復刊された。

八 王氏他氏の対立

九 色好み

十 もののけ

池田のこの論は、池田の師である折口信夫⁴⁾の「貴種流離譚」「王氏と他氏」「いろごのみ」「ものけ」などの、源氏物語に密接に関わる説を敷衍して執筆されており、源氏物語の主題を古代日本人の考え方を基礎にして深層のレベルで考察したものである。池田は一九五九年に「はだか源氏」を、一九六四年に「光源氏の一生」を上梓している。この二書はともに名著としての評判が高いが、特に「光源氏の一生」は講談社現代新書の一冊として四五年間に及ぶロングセラーを続けている。この「解説」にはこの二書に示された池田源氏学のエッセンスもまた十分に盛り込まれている。

柳呈の解説が、池田や折口の名を一切記すことなくこの文章を使用したことはまことに遺憾な事実である。しかしそれはそれとして、私は、この文章が三〇年を越える年月韓国の人々に「源氏物語」の解説として読まれ続けてきたことを、むしろ今となっては僥倖と感ずるものである。なぜならそこには「源氏物語」の重要な主題が明確に記され、それは韓国の人々が日本の王朝人と「源氏物語」に親しみを感じるための大きな助けとなったはずだからである。特に日本の韓国併合直前まで、日本の近代天皇制とは全く異なった「王朝社会」が存在した韓国においては、例えば「王氏と他氏」の争いは身近な歴史的な現実であったわけで、この「解説」が述べることに對する理解の度合もそれだけ深いものであったに違いないのである。

ただし、柳呈の解説のこの部分が池田の「解説」のかなり忠実な翻訳になっていることを認識した上で、その「翻訳」の批評を行なえば、そこに難点があったく

4) 1887-1953. 国文学者、民俗学者、歌人、詩人、小説家。大阪生まれ。国学院大学国文科卒業。柳田国男とともに日本の民俗学の樹立に貢献するとともに、民俗学的立場に立った独自の国文学・芸能学の方法を切り開いた。文学博士。国学院大学教授と慶応義塾大学教授を兼務。歌集に「海やまのあひだ」など、詩集に「古代感愛集」など、小説に「死者の書」などがある。1954～57年に「折口信夫全集」全32巻、1970～74年に「折口信夫全集ノート編」全19巻、1987～88年に「折口信夫全集ノート追補」全5巻が刊行され、1995年からは新刊「折口信夫全集」全41巻が刊行中である

ないわけでもない。それは次のような点である。

(1)池田の解説の後半部のみの翻訳であること。一連の文章の後半部のみを選んだことによって、池田が説こうとした源氏物語の主題に関する論のすべてを紹介したものとはなっていない。特に、源氏物語における「紫」の語と主題との関わりを論じた部分を取り落とす結果となっている。⁵⁾

(2)「いろごのみ」「ものけ」の説明には、「いろ」「このむ」「もの」「け」といった日本の固有語の持つ意味の解釈が深く関わっているため、これらの部分を韓国語に訳すことはかなり難しい。そのためこの概念の説明の中心的な部分に誤訳が生じてしまっている。

今後、この「解説」はこの点を意識した上で読まれるべきであろう。

五

次に、柳呈訳「源氏イヤギ」の「注釈」と「年譜」の問題に移ろう。先に述べたように、柳呈訳「源氏イヤギ」には、A本・D本のものとはB本・C本のものとの二種類の「注釈」と「年譜」がある。この二種類の内容はほぼ同じで、後者は前者に多少の修正を加えたものである。(「注釈」の数を増やして、「年譜」は活字の組み方を変えてある。)

この「注釈」と「年譜」に関して結論を先に言えば、それらはともに、先に挙げた河出書房新社版の与謝野晶子訳「源氏物語」上・下二巻に付せられた「注釈」と「年譜」を参考にして作成されているものである。この河出書房新社版の現代語訳「源氏物語」には、上下巻の本文のあとに池田弥三郎による「注釈」が付され、下巻の末尾には久松潜一が北村久備著「すみれ草」の年立を基に作成した「源氏物語年立」が付されている。柳呈訳の「注釈」は、池田の「注釈」を大いに参考にしたものであり、「年譜」は久松が作成した「年立」をそのまま翻訳したものである。

5) 与謝野晶子訳「源氏物語」上(一九六七年)の池田の「解説」の章題をここに記しておく。「一、式部の故地」「二、「式部」の名」「三、「紫」の名」「四、物語の作者」「五、源氏物語名所図会」。

柳呈訳の「注釈」は、河出書房新社版の「注釈」とは違って各帖の末尾に付せられている。それは池田の「注釈」のすべてを訳したのではなく、単語の説明に関しては柳呈が別途に付けたものも多い。しかし、源氏物語の本質的理解に関わる池田ならでの独自の「注釈」をそのまま翻訳した箇所も多い。また、池田の「注釈」は各帖の最初の注で、その帖における光源氏(宇治十条は薫)の年齢と、巻名の由来などを含めたその帖の内容を簡潔に説明しているのが特徴であるが、柳呈の「注釈」はこの部分をかなり忠実に翻訳している。

六

以上本稿では、韓国における最初の『源氏物語』の翻訳本である柳呈訳『源氏イヤギ』の性格を、本文・解説・注釈・年立の全般にわたって検討してみた。その結果、柳呈がこの翻訳にあたって大いに参考にした書物を次の一書に限定できることがわかった。

与謝野晶子訳『源氏物語』上・下二巻(『カラー版日本文学全集』3・4)、河出書房新社、一九六七年一・二月

柳呈が大いに参考にした書物をこの一書に限定できるのは、柳呈の「解説」「解題」が翻訳している池田の文章が一九七三年以前にはこの一書にしかないからである。⁶⁾

この書の本文は「昭和十四年」という年が記された晶子の「あとがき」を持つ『新新訳源氏物語』であり、柳呈訳『源氏イヤギ』の底本は、訳者が言うような日本古典文学大系本ではなく『新新訳源氏物語』であると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であろう。

最初に記したように、現在までに韓国語訳の『源氏物語』は三種類刊行されている。しかし、それらはすべて日本で刊行された現代語訳からの重訳であり、原

6) 池田は、与謝野晶子『源氏物語』に三種類の「解説」を書いている。最初は一九六一年に日本書房から出された『定本 現代語訳 源氏物語』の巻頭に付した「源氏物語について」という文章、二番目は一九六五年に河出書房新社から出された『日本文学全集 源氏物語』の巻末に付された「解説」、三番目が本稿で論じた一九六七年の「解説」である。二番目の「解説」と三番目の「解説」とは、内容的には重なる点も多いが文章は異なり、柳呈の「翻訳」は後者によるものである。

文からの全訳¹源氏物語,はまだ刊行されていないのである。7) その作業がどんなにたいへんなものであるかは、源氏物語の現代日本語訳の作業の困難さを考えただけでも想像がつくであろう。原文を自家薬籠中のものにしなければその作業は不可能であるが、さらにその意味を韓国語という別体系の語彙と表現機能を持った言語で表わすためには、もう一つの非常な困難がともなう。われわれは、この二重の困難を克服しての翻訳が少しでも早く出現することを期待するものであるが、一方この困難を理解するとき、これまでの三種の翻訳本が依然として今後も果たすべき役割を持っていることを認めないわけにはいかない。

三種の翻訳本はそれぞれの特徴を持っている。それはそれらの本が底本として選んだ現代語訳の特徴を反映している。その中でも、話の筋の的確な伝達を主として、わかりやすい現代日本語となっている与謝野訳を底本として、詩人であり現代文学の翻訳家としても名高い柳呈が訳した¹源氏イヤギ,は、他の二つの翻訳の出現以後にも¹源氏物語,の訳本としての価値を決して失ってはいない。8) そして本稿で解明したように、この¹源氏イヤギ,が偶然にも果たしたもう一つの役割は、池田弥三郎の優れた「解説」と「注釈」を通して、韓国の読者に日本の戦後の源氏物語主題論の出発点ともなり底流ともなった折口信夫の源氏物語論のエッセンスを紹介した点にある。本稿は、今後この¹源氏イヤギ,が、折口と池田の名前とその論考を十分に意識した上で読み続けられることを期待するものである。

* この論文は、日本の¹年刊芸能,第15号(芸能学会、2009年3月)に掲載したものを韓国語に訳したものである。

7) 先に触れた金鍾徳の抜粋翻訳は、現代語訳から翻訳したものではなく、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源氏物語(小学館)を底本とした原文の翻訳である。

8) 金鍾徳によれば、柳呈は一九二二年生まれで、一九三七年の学生時代に文芸誌 文芸首都に投稿した詩が当選して詩壇に進出し、その時の選者堀口大学に私淑して上智大学文学部に通いながら詩集 春に向ふ歌、や短歌集 傷つける魚、などを発表、日本の敗戦後に韓国に帰るが、その後も詩集を出したり川端康成作品集などを翻訳紹介したという(「韓国における源氏物語研究」)。また李芝善によれば、村上春樹の「ノルウェイの森」を「喪失の時代」というタイトルで翻訳し、韓国で村上春樹ブームを起こした中心人物であるともいう(「韓国語訳 源氏物語,にみる古典文学翻訳論」)

특별기획

이번 <특별기획>에서는 2010년 5월 14, 15일 고려대학교 일본연구 센터와 BK21 중일언어문화교육연구단이 주관한 국제학술대회(젊은 연구자 미래구축 포럼)에서의 발표 내용을 수록했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북경일본연구중심과 타이완정치대학외국어문학원 일본어문학계의 연구자 및 다수의 일본연구자들이 논문을 발표했다. 이에 본 기획에서는 기초강연 논문을 각각 한국어와 일본어로 게재하여, 향후 일본 연구의 새로운 비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별기획 집필자 프로]

郭連友(GUO Lian You) 현 북경외국어대학 북경일본학연구원 교수

천진(天津)외국어학원 일본어학과 졸업. 1999년 동북(東北)대학대학원 연구과 문학박사과정수료(문학박사 학위취득). 전공분야는 일본사상사, 일본문화사.

저서: 근세중일사상교류논집(2002), '요시다쇼인(吉田松陰)과 근대중국(2007) 그 외 다수.

논문: 「요시다쇼인에 관한 태평천국인식과 그 정치사상의 전환」(2004), 「백일유신과 일본(百日維新と日本)」(2007) 외 다수.

齋藤一(さいとう はじめ SAITO Hajime) 현 쓰쿠바대학 대학원 인문사회학술연구과 문예·언어전공 준교수

오타루상과대학(小樽商科大学) 상학부 상업교원양성과정 졸업. 1993년 쓰쿠바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교과교육연구과 수료(교육학석사), 1995년 쓰쿠바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문예·언어연구과수료(문학석사), 1998년 쓰쿠바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문예·언어연구과 단위취득퇴학, 2004년 쓰쿠바대학 문학박사 학위취득.

전공분야는 각국의 문학·문학론, 유럽어계통문학, 일본문학, 아시아(호주 포함)에 관한 영미문학의 수용과 변용, 영문학론.

저서: 제국일본의 영문학』(2006), Araki Masazumi et al. Eds. English Studies in Asia (Silverfish, Kuala Lumpur [Malaysia]) (共著)(2007), 문장들의 여정-이동과 변용 속의 문학.(공저)(2008)

논문: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와 영어영문학연구-〈연구〉에 대한 메모(2008), 「우리들의 섬」(2008)외 다수.

蘇文郎(SOO Wen Lang) 현 국립대만정치(政治)대학 외국어학원 일본어과 교수, 주임

동오(東吳) 대학 일본어문학과 졸업. 쓰쿠바 지역연구과 석사 수료(국제학 석사), 2001년 동오대학 일본어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문학박사 학위취득.

전공분야는 일본어문법, 중일어대조연구.

논문: '변화표현에 관한 제문제의 연구-일본어교육의 시점에서-(2006)

「『Nニ/トナル』구문의 형식과 의미-문법과 인지의 접점-(2009), 「변화타동사문 「X가Y를Z(連用語)スル」(2006), 「변화구문에 관한 의미의 수동화현상을 둘러싸고」 대만일본어교육론집(2005)의 다수.

徐一平(XU Yi Ping) 현 북경외국어대학 북경일본학연구센터 교수·센터장

고베(神戸)대학대학원 문학연구과 석사과정(문학석사)(1983년 4월~1985년 3월).

고베대학대학원 문화학연구과 박사과정 문학박사학위취득(1985년 4월~1989년 3월).

전공분야는 일본어학.

저서: 일한영언어학술대조사전(2009), 중문판일본어문형사전(번체자판·간체자판)(2001)

논문: 「중동사 か.가 나타내는 의미영역에 대해- ~ないか.의 표현을 중심으로-(2007)의 다수.

陣野英則(じんの ひでのり JINNO Hidenori) 현 와세다대학 학술원 교수

와세다(早稲田)대학 제1문학철학과 철학전공졸업. 동대학대학원 일본문학전공 석사과정수료. 2001년 동대학대학원 일본문학전공 문학박사학위취득.

전공분야는 일본고전문학, 헤이안(平安)시대문학, 모노가타리(物語)문학. 특히 겐지이야기(源氏物語),¹와 그 고주석(古注釈)에 관한 연구, 우쓰호 이야기(うつほ物語),² 쓰쓰미추나곤이야기(堤中納言物語) 등의 연구.

저서: 헤이안문학의 고주석과 수용 제2집,¹(2009), 히카루겐지(光源氏)와 가오루(薫)의 세계 1권으로 읽는 겐지이야기(2009), 테마로 읽는 겐지이야기론3 역사·문화와의 교차/말하는이(語り手)·쓰는이(書き手)·작자(作者)(2008)의 다수.

논문: 「고주석이 시사하는 겐지이야기 的 와카(和歌)적 표현-시키부쿄노미야(式部卿宮)의 오오키타노카타(大北の方)에 의한 「(저주)ののしり. 라는 말을 둘러싸고-(2009), 「다마카즈라(玉鬘)와 벤노오모또(弁のおもと)의 구혼담에 관한 「고쿄로 아사키(心浅き)」 노보(女房)의 중요성」(2009)의 다수.

特別企画

今回の〈特別企画〉では、2010年5月14、15日に高麗大学日本研究センター及びBK21中日言語文化教育研究団が主管した国際学術大会(若手研究の未来構築フォーラム)での発表内容を収録した。本大会では、北京日本学研究中心、台湾政治大学外国語大学院日本語文学系の研究者及び多数の日本人研究者の論文が発表された。ここでは、基調講演の論文をそれぞれ韓国語と日本語で掲載し、今後日本研究の新たなビジョンと進むべき方向性を模索しようとした。

[特別企画 執筆者 プロフィール]

郭連友(GUO Lian You) 現 北京外国語大学 北京日本学研究中心 教授

天津外国語学院日語系卒業。1999年、東北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博士課程修了(文学博士学位取得)。専攻分野は日本思想史、日本文化史。

著書: 近世中日思想交流論集(2002)、吉田松陰与近代中国(2007) 他多数。

論文: 「吉田松陰における太平天国認識とその政治思想の転換」(2004)、「百日維新と日本」(2007) 他、多数。

齋藤 一(さいとう はじめ SAITO Hajime) 現 筑波大学大学院人文社会科学研究科文芸言語専攻 准教授

小樽商科大学商学部商業教員養成課程 卒業。1993年、筑波大学大学院修士課程教科教育研究科修了(教育学修士)、1995年、筑波大学大学院博士課程文芸・言語研究科 修了(文学修士取得)、1998年、筑波大学大学院博士課程文芸・言語研究科 単位取得退学、2004年2月筑波大学 文学博士学位取得。

専攻分野は各国文学・文学論、ヨーロッパ語系文学、日本文学、アジア(含オーストラリア)における英米文学の受容と変容、英文学論。

著書: 「帝国日本の英文学」(2006)、Araki Masazumi et al. Eds. English Studies in Asia (Silverfish, Kuala Lumpur [Malaysia]) (共著)(2007)、テキストたちの旅程—移動と変容の中の文学 (共著)(2008)

論文: 「小笠原諸島と英語英文学研究—〈研究〉についての覚え書き」(2008)、「われわれの話」(2008) 他、多数。

蘇文郎(SOO Wen Lang) 現 国立台湾政治大学外語学院日文史 教授、主任

東呉大学日本語文学系卒業。筑波大学地域研究科修士課程 修了(国際学修士)、2001年、東呉大学日本語文学系博士課程修了 文学博士学位取得。

専攻分野は日本語文法、中日語対照研究。

著書: 変化表現に関する諸問題の研究—日本語教育の視座から— (2006)

論文: 「N=トナル」構文の形式と意味—文法と認知の接点—(2009)、「変化他動詞文「XがYをZ(連用語)

スル」(2006)、「変化構文における意味の受動化現象をめぐって」台湾日本語教育論文集(2005)他、多数。

徐一平(XU Yi Ping) 現 北京外国語大学 北京日本学研究中心 教授・センター長

1983年4月-1985年3月 神戸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修士課程(文学修士)(1983年4月-1985年3月)、神戸大学大学院文化学研究科博士課程 文学博士学位取得(1985年4月-1989年3月)

専攻分野は日本語学。

著書: 日漢英語学術語対照辞典(2009)、中文版日本語文型辞典(繁体字版・简体字版)(2001)

論文:「終助詞 かの表す意味領域について— ~ないかの表現を中心に—」(2007)他、多数。

陣野英則(じんの ひでのり JINNO Hidenori) 現 早稲田大学文学学術院教授

早稲田大学第一文学部哲学科哲学専修卒業。同大学大学院 日本文学専攻修士課程修了。2001年、同大学大学院 日本文学専攻 文学博士学位取得。

専攻分野は日本古典文学、平安時代文学、物語文学。特に 源氏物語 とその古注釈の研究、「うづは物語 堤中納言物語」などの研究。

著書: 平安文学の古注釈と受容 第二集 (2009)、光源氏と薫の世界 一冊で読む源氏物語 訳注付₁(2009)、テーマで読む源氏物語論 3 歴史・文化との交差/語り手・書き手・作者₁(2008)他、多数。

論文:「古注釈の示唆する 源氏物語 の和歌的表現—式部卿宮の大北の方による「ののり」の言葉をめぐって—」(2009)、「玉鬘と弁のおもと 求婚譚における「心浅き」女房の重要性」(2009)他、多数。